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

[1 ~ 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세 분 전문가와 청중 여러분을 모시고 ‘인터넷 댓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미디어 학과 김□□교수님, 바른 인터넷 쓰기 모임 이◇◇소장님, 포털 사이트 운영자 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터넷이 새로운 공론장으로 떠오르면서, 주요한 소통 방식인 댓글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 댓글 문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김 교수: 과거 TV나 신문이 주도했던 일방향적인 여론 형성 기능이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여한 것이 댓글이고요. 누구나 제한 없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혁신적으로 낮춘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인신공격, 비방, 욕설 등 악성 댓글이 이슈의 본질을 흐리고 진지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 대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자의 0.12%가 전체 댓글의 30% 이상을 작성하고, 기사를 읽은 사람 중 2.5%만이 댓글을 달거든요. 댓글에서 전체 여론의 향방을 읽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이 소장: 물론 충분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디만, 저는 그 원인으로 댓글의 구조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 구조적 측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소장: 가령 매우 적은 글자 수로 제한되어 있는 댓글 달기 방식은 단편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요. 조회 수를 겨냥해 자극적인 뉴스나 게시물을 상단에 노출하는 관행도 악성 댓글을 양산하는 책임과 무관하지 않죠.

사회자: 그럼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박 대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글자 수 제한을 지양하고, ‘추천’과 ‘비추천’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 간 상호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용자가 자신의 글을 평가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댓글 작성자가 이전에 썼던 댓글들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댓글을 개인 블로그와 연결해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 교수: 저는 악성 댓글로부터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규제보다는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 공공 기관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소장: 적극적 규제는 악성 댓글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용자들이 의사 표현에 심리적 위축을 느낄 수 있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대립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1.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 논제를 제시하고 토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 ② 사회자: 참여자에게 정보를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③ 김 교수: 실제 사례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박 대표: 통계 자료를 인용해 다른 참여자의 견해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이 소장: 다른 참여자의 말을 일부 긍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위 토의에 참가한 청중이 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교수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악성 댓글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이 소장님, 악성 댓글을 줄이는 것이 이용자의 기본권 제한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③ 김 교수님,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규제 방식을 강조하셨는데, 정부 규제 방식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④ 박 대표님, 인터넷의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 ⑤ 박 대표님, 단편적인 댓글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보기>는 인터넷 댓글의 일부이다. 위 토의를 바탕으로 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동물 실험으로 더 많은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 의학 연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 ▶추천 28 ▶비추천 2

② 동물 실험 찬성자들은 모두 다 살인마ㅋㅋ ▶추천 2 ▶비추천 76

③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ππ ▶추천 60 ▶비추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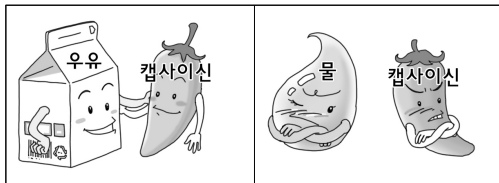
- ① 김 교수는 ①, ②, ③의 작성자를 포함해 누구나 제한 없이 댓글을 통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② 박 대표는 ①보다 ③이 ‘추천’을 많이 받은 것에서 동물 실험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함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③ 김 교수는 ②과 같은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④ 이 소장은 ②과 같은 댓글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⑤ 박 대표는 ③에 대한 ‘비추천’이 많은 것을 이용자 간의 상호 견제 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호입니다. 여러분, ‘캡사이신’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못 들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웃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양고추를 먹다가 매워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급한 대로 물을 마셨는데, 매운 맛이 가시기는커녕 점점 더 매운 맛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캡사이신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원래 식물이 곰팡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자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은 아주 매운 맛을 내고 몸에 열이 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왜 매운 맛이 가시지 않을까요?
(슬라이드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그림을 보시죠.



오른쪽 그림은 물과 캡사이신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캡사이신은 서로를 멀리 합니다. 따라서 혀를 자극하고 있는 캡사이신을 물로는 잘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캡사이신과 우유는 서로 친해 보이지요? 이 두 물질은 모두 무극성이라는 공통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 잘 알고 있지요? (웃으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면, 무극성 물질이란 분자 내에서 전자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분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캡사이신은 극성 물질인 물에 더 잘 녹을까요? 아니면 무극성 물질인 우유에 더 잘 녹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유에 더 잘 녹겠지요.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모두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면, 캡사이신은 매운 맛을 내는 무극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운 맛을 없애려면 물 대신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그럼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다음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도입
 - 발표할 내용 제시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임을 강조 ㉠
- 전개
 - 캡사이신의 특성 제시
 - 캡사이신의 화학적 속성 제시 ㉡
 - 캡사이신의 다양한 활용 사례 제시 ㉢
- 정리
 - 청중의 이해도 점검 ㉣
 - 발표 내용 요약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위 발표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의 실제 경험을 들어 흥미를 유발한 것 같아.
- ②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자의 심리를 잘 드러낸 거 같아.
- ④ 상황에 맞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 ⑤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것 같아.

6. <보기>의 ㉠~㉤은 ‘건의문’의 구성 단계에 따른 ‘글쓰기 전략’이다. ㉠~㉤ 중에서 <건의문>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단계	글쓰기 전략
처음	○ 인사말과 함께 건의자를 명시하여 예상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
중간	○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제시하여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잘 드러낸다. ㉡ ○ 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효과를 제시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인다. ㉢
끝	○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 ○ 정중한 마무리 인사로 좋은 인상을 남긴다. ... ㉤

[건의문]

존경하는 ○○구 구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지영입니다. 먼저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보행자 안내 표지판의 설치에 대해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에는 전통 문화 체험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동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는 길이 복잡한 데다 체험관과 박물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서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난 한 외국인 관광객은 자연사 박물관을 찾지 못해 지도를 들고 오랜 시간 헤매고 있다며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따라서 길이 갈라지는 길목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구청에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길 안내가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길목마다 잘 설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청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8] <보기 1>은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1 >

(가) 신문 기사

최근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가족친화지수가 주목받고 있다. 가족친화지수란 여러 종류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이다. ‘도입’은 제도의 도입율, ‘활용’은 도입된 제도를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지수 산출 시 두 요소가 모두 고려된다. 가족친화지수는 2009년 49.2점, 2010년 51.6점, 2011년 57.8점, 2012년 58.9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통계 자료

1. 가족친화지수 등급별 비율(2012년)

등급	비율 (%)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활용 정도	
		도입	활용
매우 우수	0.1	적극적임	높음
우수	2.3	많이 하는 편임	비교적 활발함
양호	37.2	일부 도입함	활용하는 편임
보통	22.3	일부 도입함	거의 안 함
미흡	38.1	거의 안 함	-

2. 가족친화지수 영역별 현황(2012년)

영역	지수(점)
탄력적 근무제도	63.0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76.7
부양가족 지원 제도	21.5
근로자 지원 제도	43.2
가족 친화 문화 조성	65.2

* 각 영역별 지수의 최고점은 200점임.

(다) 전문가 인터뷰

“비용 부담 때문에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시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입된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영자가 도입된 제도의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 교수 -

< 보기 2 >

주제문: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I. 서론 ㉠
- II. 본론
1. 현황
- 가.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활용 추세 ㉡
- 나.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활용상의 문제 ㉢
2. 문제 원인 분석
- 가. 제도 도입 측면
- 나. 제도 활용 측면 ㉣
3. 정책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
- 가. 제도 도입 측면
- 나. 제도 활용 측면 ㉤
- III. 결론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활용하여 ㉠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가족친화지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을 다룬다.
- ② (가)를 활용하여 ㉡에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다룬다.
- ③ (가), (나)-1을 활용하여 ㉢에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활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다룬다.
- ④ (나)-2, (다)를 활용하여 ㉣에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정도가 낮은 이유가 근로자들이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다룬다.
- ⑤ (다)를 활용하여 ㉤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사용이 장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룬다.

8. <보기 2>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조 건 >

- ‘II-3-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구체적 문제 해결 방안-근거’의 순서로 전개할 것.

- ① 가족친화제도 도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 부담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③ 가족친화제도의 문제는 활용보다 도입에 있다.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활용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구성원들이 느끼는 안정감이 커져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⑤ 최근 가족 해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아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아 자기 성찰의 글을 쓰는 것이었다. 나는 우선 ‘배려’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얼마 전 학교에서 은정과 있었던 일이 떠올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도 생각해 보았다.

[학생의 글]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지금껏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배려’라는 말뜻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오르게 하였다.

어느 날 은정이가 나에게 찾아와서 ㉠ 성급한 목소리로 오늘 주변을 대신 해 줄 수 있는냐고 물었다. 아르바이트를 가야 ㉡ 하는데, 주변 활동을 다 하고 나면 약속 시간에 늦게 된 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잠시 머뭇거리자 은정이는 내일 아침 내가 해야 할 특별구역 청소를 대신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도 덥고 주변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 나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 나는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은정에게 그러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작은 배려로 내일 아침에 귀찮은 특별구역 ㉣ 청소에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참기로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을 배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배려’라는 말뜻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진정한 배려를 한 게 아니었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내가 은정이를 도와 준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써서 도와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도 배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앞으로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마음을 다해 진정한 배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배려’의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한다.
 ㉡ ‘배려’와 관련된 일상적인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측면의 효과를 부각하여 예상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 ‘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조직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밑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다급한’으로 고친다.
 ② ㉡: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하는데’로 고친다.
 ③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청소를’로 고친다.
 ⑤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는 국어 수업 게시판의 문답 내용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왜 ‘젓가락’은 ‘ㅅ’ 받침을 쓰는데, ‘숟가락’은 ‘ㄷ’ 받침을 쓰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젓가락’과 ‘숟가락’은 비슷한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어. 먼저, ‘젓가락’은 ‘저’와 ‘가락’이 결합된 말로,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인 것이지. ‘ ㉠ ’ 같은 단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 말이야. 그런데 ‘숟가락’은 ‘수’와 ‘가락’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술’과 ‘가락’이 결합된 합성어야. 한글맞춤법에서는 이처럼 끝소리가 ‘ㄹ’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 ㉡ ’ 같은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지.

- | | | |
|---|------|------|
| | ㉠ | ㉡ |
| ① | 젓째 | 삼진날 |
| ② | 맷돌 | 미담이 |
| ③ | 혼삿길 | 실달 |
| ④ | 나뭇잎 | 선부르다 |
| ⑤ | 셋노랑다 | 만며느리 |

12. ㉠~㉤의 문장을 고쳐 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고쳐 쓴 문장
㉠	이는 미리 예상했던 일이다.	이는 예상했던 일이다.
㉡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
㉢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나는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았다.
㉣	이 책은 쉽게 읽혀진다.	이 책은 쉽게 읽힌다.
㉤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있으십니다.

- ① ㉠: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②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③ ㉢: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④ ㉣: 이중피동어 사용되었다.
 ⑤ ㉤: 높임법의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다.

13 <보기>의 표준 발음 규정을 활용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3점]

- < 보 기 >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ㅈ, ㅊ, ㅌ, ㅎ), ㅂ(ㅃ, ㅍ, ㅆ, ㅁ)’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ㄷ’은 [ㄴ]으로 발음한다.
- 제20항 ‘ㄴ’은 ‘ㄷ’의 앞이나 뒤에서 [ㄷ]로 발음한다.

- ① ‘항로’의 ‘ㄷ’을 [ㄴ]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앞 음절의 받침과 관계가 있을까요?
- ② ‘금용’의 발음이 [금냥 / 그똥]의 두 가지로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광한루’는 [광한누]라고 발음하나요, [광할루]라고 발음하나요?
- ④ ‘칼날’은 표기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단어에 해당되나요?
- ⑤ ‘밤물’이 [밤물]과 같이 발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4 다음은 ‘다의어’에 관한 탐구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보 기 >

- ㄱ. 그 분은 아침에 서울로 가셨다.
- ㄴ. 너에게 신호가 가면 직접 숲을 해.
- ㄷ.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중간은 간다.
- ㄹ. 그렇게 이른 시간에 친구 집을 간 본 적은 없다.
- ㅁ.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 ㅂ. 물이 어른 무릎쯤 간 냇물이라 아이들이 놀기에도 적당하다.

- (1) ㄱ~ㅂ을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묶어 보자.
(ㄱ, _____) (ㄴ, _____) (ㄷ, _____)
-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 _____ ㉠

- ①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른다.
- ②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른다.
- ③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난다.
- ④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 ⑤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15 아래의 글에서 <보기>의 ㉠과 ㉡가 모두 나타난 것은?

< 보 기 >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상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지시 표현, 접속 부사 등과 같은 ㉠연결어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유사한 어휘 또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도 표현된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청소년 목공동아리 ‘목동’의 이번 활동은 연필꽂이 만들기입니다. ① 먼저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다음으로 치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치수에 따라 나무를 자르는 재단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단된 나무를 잘 배치해서 접착제로 붙입니다. ② 우리 목동 친구들은 잘 아시죠? 접착제를 너무 많이 쓰면 접착제가 나무의 겉면으로 빠져나와 굳잖아요. ③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만 발라줍니다. 접착제로 다 붙인 후에는 못을 자동으로 박는 목공 기구인 ‘타카건’으로 나무판들을 고정합니다. ④ 이렇게 한 다음 연필꽂이의 바닥까지 모두 조립하고 사포질을 해 줍니다. 사포질을 안 한 모서리에 찢리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⑤ 사포질을 할 때에는 나무의 결을 따라 하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사포질을 마친 후에는 연필꽂이에 칠을 하거나 장식을 붙여 완성합니다.

16 <보기>에서 ㉠~㉣에 들어갈 목적격 조사로 옳은 것은?

< 보 기 >

15세기 국어의 모음 중 ‘ㅏ, ㅑ, ㅓ’는 양성모음, ‘ㅗ, ㅜ, ㅡ’는 음성모음, ‘ㅣ’는 중성모음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모음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을, 툴, 툴’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함께 체언과의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중세국어	현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사람+㉠	사람+을	누+㉡	누구+를
천하+㉢	천하+를	뽕+㉣	뽕+을

- | | | | |
|-----|-----|-----|-----|
| ㉠ | ㉡ | ㉢ | ㉣ |
| ① 을 | ① 툴 | ① 를 | ① 을 |
| ② 을 | ② 툴 | ② 을 | ② 를 |
| ③ 을 | ③ 툴 | ③ 를 | ③ 툴 |
| ④ 을 | ④ 툴 | ④ 툴 | ④ 툴 |
| ⑤ 툴 | ⑤ 툴 | ⑤ 툴 | ⑤ 툴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상 과학 영화 속의 사이보그를 보면, 인간과 똑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듯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들을 인간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 즉 비인간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고유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17세기 데카르트는 동물과 인간의 몸은 유사하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분리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유물론이나 진화론 등이 대두되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우월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은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계 장치의 이식이나 유전자 변이에 의해 강화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 소위 '포스트휴먼'이 등장하면서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인공팔과 인공망막 등이 신체에 이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의 개발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고, 더 나아가 기계 인간인 사이보그가 등장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이제 인간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인간이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 환경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기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다면 기계에 대한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 왔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 왔던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특정 관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ㄴ. 대상과 관련된 상반된 이론들을 절충하고 있다.
 - ㄷ. 가설을 세운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 ㄹ.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암울한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 ②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기보다는 그러한 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 ③ 인간은 끊임없는 성찰을 통하여 비인간과 구분되는 속성을 찾아내야 한다.
- ④ 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인간은 기계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 ⑤ 합리적 사고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19. <보기>는 어떤 영화의 줄거리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미래의 어느 날, 지구는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해 황폐화되고 인류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는 사이보그 T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T₁은 병에 걸리거나 늙지 않으며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다. 인간은 그들의 노동력 제공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인간의 아이들은 사이보그 T₁에게 교육을 받으며 인류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① 과학 기술로 만들어 낸 사이보그 T₁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포스트 휴먼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인간처럼 사유하는 사이보그 T₁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인간이 사이보그 T₁의 노동력 없이 살 수 없게 된 것은 과학 기술이 만든 환경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인간이 사이보그 T₁에게 교육을 받게 된 것은 비인간이 인간의 도구에 국한되지 않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사이보그 T₁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고유의 인간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는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제품의 여러 브랜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이를 대안 평가라 하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이 있다. <표>는 소비자가 호텔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개의 브랜드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으로, 호텔을 선택하는 평가 기준의 항목과 그것의 순위, 중요도, 평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점수			
항목	순위	중요도	A	B	C	D
위치	1	50%	4	6	6	5
가격	2	30%	5	4	6	7
서비스	3	20%	5	3	1	3

<표> 브랜드에 대한 기준별 평가 점수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

㉠ 보완적 방식은 브랜드의 어떤 약점이 다른 강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대안이 적을 때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쓰인다. 각 브랜드의 기준별 평가 점수에 각 기준의 중요도를 곱하여 합산한 뒤 가장 점수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표>에서 A는 $(4 \times 0.5) + (5 \times 0.3) + (5 \times 0.2) = 4.5$ 이고 같은 방식으로 B는 4.8, C는 5, D는 5.2이므로 D가 최종 선택될 것이다. 반면, ㉡ 비보완적 방식은 어떤 브랜드의 약점이 다른 강점에 의해 상쇄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대안이 많을 때나 저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쓰인다. 비보완적 방식은 다시 사전편집, 순차적 제거, 결합, 분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전편집 방식은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1순위 기준에서 두 개 이상의 브랜드가 동점이라면 2순위 기준에서 다시 우수한 브랜드를 선택하면 된다. <표>에서 본다면, 1순위 기준인 '위치'에서 B와 C가 동점이므로 2순위 기준인 '가격'에서 C를 선택하는 식이다. 둘째, 순차적 제거 방식은 1순위 기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면 구매하겠다는 허용 수준을 설정하고 이와 비교하여 마지막까지 남은 브랜드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에서 1순위 기준인 '위치'의 허용 수준이 5라면 이 수준에 미달되는 A가 일단 제외되고, 2순위인 '가격'의 허용 수준이 6이라면 B가 다시 제외되고, 3순위인 '서비스'의 허용 수준이 2라면 다시 C가 제외됨으로써 결국 D가 선택될 것이다. 셋째, 결합 방식은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결정한 다음 기준별 브랜드 평가 점수가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허용 수준에 미달하면 이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표>에서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각 4라고 가정한다면 허용 수준에 미달되는 속성이 하나도 없는 A가 선택될 것이다. 넷째, 분리 방식은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잡은 뒤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이를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에서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7로 잡는다면 가격 면에서 7 이상인 D만 선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 평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매할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대안 평가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 세울 수 있다.

20.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구분하고 가상의 사례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있다.
- ④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21.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브랜드 대안이 적을 때에 주로 사용된다.
- ② ㉠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된다.
- ③ ㉡은 평가 기준 항목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은 브랜드의 어떤 약점이 다른 강점에 의해 보완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 ⑤ ㉡은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브랜드 간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22. 위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오른쪽 자료는 민영이 필기구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라 A, B, C 브랜드에 부여한 평가 점수이다. 평가 기준은 가격, 디자인, 내구성만을 고려한다.

평가 기준		평가 점수		
항목	순위	A	B	C
가격	1	5	2	3
디자인	2	2	4	3
내구성	3	1	3	3

- ① 민영이 사전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A를 선택하겠군.
- ② 민영이 '가격'과 '디자인'의 순위를 바꾸어 사전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B를 선택하겠군.
- ③ 민영이 '가격'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순차적 제거 방식을 사용한다면 B를 먼저 제외하겠군.
- ④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결합 방식을 사용한다면 C를 선택하겠군.
- ⑤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고 분리 방식을 사용한다면 C를 선택하겠군.

23.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립(樹立)할
- ② 정립(定立)할
- ③ 설립(設立)할
- ④ 제정(制定)할
- ⑤ 지정(指定)할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그림의 정면에 상정하여 사물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감상자가 그림을 매우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상자의 위치를 적절히 고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당대의 이론가였던 프란체스카는 감상자들의 시야가 그림의 정면에서 90도 각도 이내여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바로크 시기에 이르러 예술가들은 이러한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장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나모르포시스(anamorphosis)라는 독립된 회화 기법으로 발달시켰다.

아나모르포시스, 즉 왜상은 사물의 형상을 극도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어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기 어렵다. 왜상의 종류에는 사각왜상과 반사왜상이 있다. 감상자가 특정한 지점에서 화면을 보았을 때 왜상이 바른 형상으로 보인다면, 그 지점은 화면을 기준으로 항상 사각(斜角)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상을 사각왜상이라고 한다. 또한 왜상의 주변에 원통형 거울을 놓았을 때 거울의 반사를 통해 형태가 제대로 보이는 왜상은 반사왜상에 해당한다.

그림을 정면에서 보는 방식에 익숙한 감상자는 왜상을 처음 보면 사물이 아닌 일종의 ‘얼룩’으로 지각하고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어 보거나 거울을 놓아보게 되면 이 얼룩은 의미를 가진 형상으로 탈바꿈한다. 즉 감상자의 위치 혹은 감상자의 행위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본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화가가 왜상의 형태로 감추어 놓은 이미지는 감상자의 참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감상자는 화가의 숨겨진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의 감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니세론이라는 학자는, 왜상은 일상적인 감상법으로 보면 혼돈으로 여겨지지만 올바른 시점을 찾아내는 감상자는 숨겨진 진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아나모르포시스는 그 독특한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서양 미술사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여흥거리로만 여겨져 오기도 했다. 또한 ㉠ 특히 사각왜상의 경우 감상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앞서 설명한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를 감상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면이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그림을 수동적으로 보기만 해왔던 감상자가 왜상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상을 바르게 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가의 의도와 주제를 찾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왜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과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글쓴이의 시각에서 대상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④ 대상이 독립된 회화 기법으로 발달된 시기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의 개념에 대한 서양 미술사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25.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바로크 시대에 그려진 이 작품의 아랫부분에는 해골이 길게 늘어진 왜상으로 그려져 있다. 작가는 그림이 걸리게 될 장소를 고려하여, 그림 옆에 위치한 층계에서 볼 때 왜상이 동그란 해골로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이때 해골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며 그림 중앙의 사물이 상징하는 지식과 부를 갖춘 주인공의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 ① 감상자가 층계라는 특정한 지점에서 볼 때 왜상이 바르게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림의 해골은 ‘사각왜상’에 해당하겠군.
- ② 정면에서 그림을 보는 방식에 익숙한 감상자가 이 그림을 정면에서 처음 보게 되면 왜상을 의미 없는 ‘얼룩’으로 지각하겠군.
- ③ 층계에서 그림을 보며 왜상이 해골이라는 것을 알아챈 감상자는 상을 바르게 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군.
- ④ 동그란 해골을 보고 주인공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감상자는 그림에서 화가의 숨겨진 생각을 파악해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그림의 정면에서 있던 감상자가 해골이 동그랗게 보이는 위치로 이동한다면 그림 중앙의 물건들은 ‘지식과 부’라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겠군.

26.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화의 근본적 주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 ② 정면에서 볼 때 화가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 ③ 그림에서 화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 ④ 일정한 위치에서 보아야 화가가 의도한 형상을 잘 볼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 ⑤ 화가가 설정한 주제를 찾는 것보다 감상자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동물들은 생리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체액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분의 획득과 손실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을 삼투 조절이라 한다. 동물은 서식지와 체액의 농도, 특히 염도 차이가 있을 경우, 삼투 현상에 따라 체내 수분의 획득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과제이다.

삼투 현상이란 반(半)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양쪽의 용액 중, 농도가 낮은 쪽의 용매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 가는 현상이다. 소금물에서는 물에 녹아 있는 소금을 용질, 그 물을 용매라고 할 수 있는데, 반투과성 막의 양쪽에 농도가 다른 소금물이 있다면,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양쪽의 농도가 같다면, 용매의 순이동은 없다고 한다.

동물들은 이러한 삼투 현상에 대응하여 수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삼투 순응형과 삼투 조절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삼투 순응형 동물은 모두 해수(海水) 동물로 체액과 해수의 염분 농도, 즉 염도가 같기 때문에 수분의 순이동은 없다. 게나 홍합, 갯지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삼투 조절형 동물은 체액의 염도와 서식지의 염도가 달라, 체액의 염도가 변하지 않도록 삼투 조절을 하며 살아간다.

삼투 조절형 동물 중 해수에 사는 대다수 어류의 체액은 해수에 비해 염도가 낮기 때문에 체액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표피는 비투과성이지만, 아가미의 상피세포를 통해 물을 쉽게 빼앗긴다. 이렇게 삼투 현상에 의해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들은 계속 바닷물을 마시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의 창자에서 바닷물의 70~80%가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염분도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가미의 상피세포에 있는 염분 분비 세포를 작동시켜 과도해진 염분을 밖으로 내보낸다.

담수에 사는 동물들이 직면한 삼투 조절의 문제는 해수 동물과 정반대이다. 담수 동물의 체액은 담수에 비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아가미를 통해 수분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담수 동물들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들의 비투과성 표피는 수분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육상에 사는 동물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오줌, 대변, 피부, 가스교환 기관의 습한 표면 등을 통해 수분을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상 동물들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 그리고 세포호흡으로 물을 생성하여 부족한 수분을 보충한다.

27. 밑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들은 체액의 농도가 크게 달라지면 생존하기 어렵다.
- ② 동물들이 삼투 현상에 대응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③ 동물의 체액과 서식지 물의 농도가 같으면 삼투 현상에 의한 수분의 순이동은 없다.
- ④ 담수 동물은 육상 동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하여 체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⑤ 육상 동물들은 세포호흡을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2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넙치는 아가미와 창자를 지닌 어류이다. 아가미에는 상피세포가 있고, 상피세포에는 염분 분비 세포가 있다. 그리고 물에 비투과성인 표피를 지니고 있다.

- ① 넙치의 창자에서는 수분이 혈관으로 흡수되었군.
- ② 넙치의 아가미에서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군.
- ③ 넙치의 표피는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군.
- ④ 넙치는 염분 분비 세포를 통해 체내의 과도한 염분이 배출되었군.
- ⑤ 넙치는 체액의 염도가 서식하고 있는 물의 염도보다 낮은 삼투 조절형 동물이겠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책을 볼 때는 다만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가라앉혀 이치가 담긴 곳을 찬찬히 살펴야 한다. 취할 만하면 비록 세속 보통사람의 말이라도 폐하지 않는다.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비록 성현의 말씀으로 전해 온다 해도 또한 다시금 살펴 가려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의미가 차분해지고 이치가 명백해져서 밝은 실지를 딛고 행동에 의거함이 있게 되니, 통달에 걸려 스스로를 속이는 근심이 없다.

- 양응수, 「위학대요(爲學大要)」-

(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종일 배불리 먹고서도 마음 쓰는 곳이 없다면 딱한 노릇이다. 장기나 바둑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다.” 선유(先儒)*가 말했다. “성인께서 사람들에게 장기나 바둑을 가르치신 게 아니다. 다만 마음 쏟는 바가 없는 것이 해로움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일 뿐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르고 공평해서 폐단이 없다. 누르고 올림에도 지나친 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 말을 바둑이나 장기 두는 무리에게 듣게 한다면 어찌 핑계거리가 되기에 충분치 않았는가? 대저 공자의 시대에는 후세와 같은 도박의 풍조는 없었다. 학문의 길은 방심(放心)을 구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바둑이나 장기는 마음을 쏟고 뜻을 다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 이 또한 방심을 구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옛날에 이른바 노름이란 것도 이제 와서 고증할 길은 없지만, 내 생각에 또한 마땅히 법도와 형상이 담긴 바가 있어서 오늘날처럼 떠들썩하게 다투며 빼앗느라 위 의(威儀)를 상실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만약 춘추시대에 지금의 마작 같은 것이 있었다면 성인께서 어찌 이런 가르침을 내리셨겠는가? 그래서 나는 말한다. 책을 읽어 뜻을 풀이할 때에는 그 시대를 먼저 살펴피지 않을 수 없다고.

- 홍석주, 「학강산필(鶴岡散筆)」-

* 선유: 앞 시대의 유학자.

29. (가), (나)에 나타나 있는 ‘독서’와 관련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책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책을 읽을 때는 이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명성보다는 그 내용의 가치를 수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④ (나)에는 책에 나온 성현의 말씀이 바르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⑤ (나)에는 성현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 선유들의 견해를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30. (나)의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수행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 자신의 삶에 활용한다.
- ②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③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 ④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 ⑤ 독서의 목적, 독서 과제, 독자의 상황 등과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 집 잃은 내 몸이며,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
이처럼 ㉢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내 몸은 ㉣ 떠 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은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 —

* 보습: 땅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의 일종.

* 산경: 산에 있는 경작지.

(나)

「너 들어 보았니
[A] 저 둥구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B]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C]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땡땡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D]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E]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뚱뚱뚱 울리겠니

—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

* 우듬지: 나무줄기 꼭대기.

* 면면함: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 있음.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②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 ④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 ③ ㉢: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가 나타난다.
- ④ ㉣: 유량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⑤ ㉤: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보 기 >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놓고 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상처를 회복하며 생명을 이어가듯 농촌 역시 생명력과 공동체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생(生)의 의미로 확장되어, 면면히 ‘겨울’을 이겨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제목인 ‘면면함’은 이 시의 주제를 함축한다.

- ① [B], [D]의 상황 대조를 통해 ‘푸르른 울음소리’의 정체가 시련을 딛고 뿔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임을 ‘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②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땡땡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군.
- ③ [D], [E]를 통해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낸 ‘오늘’의 ‘나무’를 ‘쳐다보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E]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을 주고 있음을 ‘복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⑤ [A] ~ [E]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동일시됨으로써,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알 수 있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零落)하였다. 모시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맥고모자를 쓴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다. 구보는 망설거리다. 그대로 모른 채하고 [A] 지날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다.

“이거 얼마 만이야, 유(劉)군.”

그러나 벼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만입니다.”

[B]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뵈울 수 없었어요.”

[C]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나 벼은, 그만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린다.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붙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기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쩔면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들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고, 결코 턱턱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 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들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썼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드난: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줌.

*쓰메에리: 목을 돌려 바깥 여미게 지은 양복.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을 이동하며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35.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와 ‘옛 동무’의 물리적 거리는 [A]에서는 가까워지며 [C]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구보가 ‘옛 동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C]로 가면서 심화되고 있다.
- ③ [A]와 [C]에는 ‘옛 동무’에 대한 구보의 복합적인 감정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 ④ [A]에서 ‘옛 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반목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소통에 대한 구보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구보가 관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몸과 그 연장선인 그들의 행색이나 행동이다.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세계와 교섭하며 그 흔적을 내재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구보의 시선이 포착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병든 육체와 정신이다. 이는 식민지 근대에 대한 구보의 진단이자,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 ① ‘구보’가 ‘대학도트’를 꺼내 든 것은 ‘바세도씨병’을 앓는 ‘노동자’와 그를 대하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시대의 일면을 포착한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② ‘군중’들이 ‘온정’을 잃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모습에 ‘구보’가 ‘딱하고 가엾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병든 정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볼 수 있군.
- ③ ‘노파’의 ‘굳어 버린 안면 근육’과 ‘딸의 그지없는 효양’으로도 감동시킬 수 없는 ‘눈’은 육체적, 정신적 생기를 상실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캡 쓰고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의혹을 갖는 두 눈’에 지식인의 우울과 회의를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구보’ 역시 ‘만성 위확장’을 앓는 환자라는 사실은 구보의 ‘고독’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군.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찰사(觀察使)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관곡을 조사하다가 정선 고을에 와서 축난 것을 보고 크게 골을 내며
“어떤 놈의 양반이 이렇게 했단 말이나.”

하고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그 양반이 위낙 가난해서 관곡을 갚을 길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차마 가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탄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꼭 곤란한 처지였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아내는,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관곡을 갚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구려. 허구한 날 양반, 양반 하더니 그 양반이라는 것이 한 뿐어지도 못 되는구려.” 했다.

마침 그 마을에 있는 부자 한 사람이 집안끼리 상의하기를

“양반은 비록 가난하지만 늘 존경을 받는데, ㉠ 우리는 비록 부자라 하지만 늘 천대만 받고 말 한번 타지도 못할 뿐더러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고 뜰 아래서 엎드려 절하고 코가 땅에 닿게 무릎으로 기어 다니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마침 양반이 가난해서 관곡을 갚을 도리가 없으므로 형편이 난처하게 되어 양반이란 신분마저 간직할 수 없게 된 모양이니 이것을 우리가 사서 가지도록 합시다.”

말을 마친 후 부자는 양반을 찾아가서 빌린 곡식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했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이를 허락했다. 그리고 부자는 곡식을 대신 갚아 주었다.

군수는 그 양반을 위로할 겸 또한 관곡을 갚은 내력을 들을 겸 그를 찾아 갔다. 그런데 양반은 병거지를 쓰고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을 입은 채 뜰 아래에 엎드려 ‘소인, 소인’ 하면서 감히 군수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군수는 뛰어 내려가 붙들고,

“아니 왜 이렇게 못한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수그리고 엎드려서,

“황송합니다. 실은 소인이 감히 스스로 욕되고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양반인 체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군수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그 부자야말로 군자며 양반이로군.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가 있고, 사람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겨 구하였으니 그것은 어진 것이요, 낮은 것을 미워하고 높은 것을 사모하니 슬기로운 일입니다. 이는 참으로 양반이외다. 비록 그렇지만 개인끼리 사고 팔고 했을 뿐 증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소송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나와 당신이 고을 사람을 모아 놓고 증서를 만들어서 군수인 나도 거기다 도장을 찍으리다.”

(중략)

이렇게 증서에다 쓰고 성주(城主)인 정선 군수가 이름을 쓰고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모두 서명을 했다. 이렇게 한 후 통인(通引)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큰 북을 치는 듯하고 모양은 북두칠성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을 호장(戶長)이 다 읽자 부자는 한참 동안 슬픈 표정으로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란 것이 겨우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 양반은 신선과 같다고 하여 많은 곡식을 주고 산 것인데 너무도 억울합니다. 더 좀 이롭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증서를 고쳐 쓰기로 했다.

“하늘이 백성을 냄에 있어 그 백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자는 선비인데 이를 양반이라고 하여 모든 점에 이로운 것이 많다.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는 할 수 있다. 문과의 흥패라고 하는 것은 두 자밖에 안 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돈자루라고 할 수 있다. 진사는 나이 삼십에 첫 벼슬을 해도 이름이 나고 다른 훌륭한 벼슬을 또 할 수 있다. 귀는 일산 밑 바람으로 희어 지고 배는 종놈의 대답 소리에 저절로 불러진다. 방에는 노리개로 기생이나 두고 마당에는 학을 먹일 것이다. 궁한 선비가 되어서 시골에 가 살아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이웃집 소가 있으면 내 논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내 밭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놈이든지 감히 말을 듣지 않으면 코로 잣물을 먹이고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해도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자는 이러한 내용을 듣다가 질겁을 하고,
“아이구 맹랑합니다그러.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 셈이란 말이요.”

하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짓고는 한평생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 박지원, 「양반전」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전기성을 바탕으로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대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선 양반은 나라에서 곡식을 꾸어다 먹고 갚지 못했다.
- ② 군수는 정선 양반의 처지를 동정하여 그를 잡아 가두지 못했다.
- ③ 군수는 정선 양반이 양반 신분을 판 것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찾아 갔다.
- ④ 군수는 부자가 양반을 도와주었다는 것에 대해 의로운 행위라 칭송했다.
- ⑤ 군수는 부자의 요구에 따라 증서에 격식을 갖추어서 서명을 했다.

39. ㉠의 상황을 두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할 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생 양반에게 괘시 받고 살았던 부자의 ()이 느껴지는군.”

- ① 함분축원(含憤蓄怨) ② 안분지족(安分知足)
-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④ 수구초심(首丘初心)
- ⑤ 만시지탄(晩時之歎)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정선 양반에 대해서는 ㉠ 무능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관점과 ㉡ 신분적 제약에 의해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관점이 있고, 부자에 대해서는 ㉢ 신분 상승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속물적 존재라는 관점, ㉣ 본성이 선량하고 건전한 상식을 지닌 존재라는 관점, 그리고 군수에 대해서는 ㉤ 양반 매매 증서 작성을 통해 부자의 욕망을 억압하는 존재라는 관점이 있다.

- ① ㉠: 두 번째 증서에서 나타나는 무위도식하며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 양반 신분으로 인해 평생 글 읽기만 하다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 부자가 양반의 곤궁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 부자가 두 번째 증서의 여러 특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양반되기를 포기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 두 번째 증서에서 군수가 양반의 부도덕한 측면을 부각하여 부자 스스로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라 훨씬 펴고, 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 지고 평퍼저, 던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 기산 영수(箕山潁水): 중국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명리(名利)를 피하여 은거한 곳.

(나)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든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꽃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제2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으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얌: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릴: 부러워함.

4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나)는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42.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의성·의태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43.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의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이며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감엔 마땅히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물러남엔 마땅히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① ‘알맞게 먹’고 ‘슬카지 노니’는 것은, 물러난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성이 게으르’다는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는 물러남으로 인해 ‘다툼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임금 은혜’를 ‘값고자’ 하는 태도는, ‘나’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희기: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고 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덕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희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예요?

희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 (안타깝게) 선생님.....

희기: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희기: ㉡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중략)

금숙: 아까 그 환자에게 대해서 너무 냉담하신 것 같았어요..... 가없잖아요?

회기: 가없는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금숙: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일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회기: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변하며) 내가 냉정했을까?

금숙: 그 환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회기: (깊은 생각에 잠기며) 세상은 참 묘한 거야..... 사람들은 ‘의(醫)는 인술(仁術)’이니 뭐니 하여 의사를 무슨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지만, 나 자신은 조금치도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여자건, 남자건, 미인이건, 늙은이건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니 말야.....

금숙: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 내지 않아요?

회기: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한 적은 없었어! 5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폐외과를 전공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 본 수술을 해 본다는 호기심과 이걸 배워 가지고 가면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공명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구하느니 하는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도 못했거든! (하며 담배 연기를 푹푹 뿜는다.)

금숙: (약간 당황하며) 전 자세한 얘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의 그 메스처럼 날카로운 두뇌와 손을 무한히 존경해요! 그리고.....

회기: 그리고?

금숙: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시도록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도 의학에 전 생애를 바치시겠다는 의욕에서이시라고.

회기: 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미스 정은 정말 지레 짐작도 잘 하는군! 그야말로 오버센스야!

금숙: (무안해지며) 예?

회기: 결혼과 의학과 무슨 상관있어. 내가 서른다섯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내 취미지 누구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금숙: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분이 어째서.....

회기: ㉕ (단호하게 단정을 내리듯) 마음이 쏠리지 않는 일은 도대체가 하기 싫단 말이지.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금숙: 그렇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회기: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나?

금숙: (수줍음을 감추며) 독신보다는 덜 외롭겠죠.....

회기: (멀거니 금숙을 쳐다보며) 그럼, 미스 정은 왜 결혼을 안 하지?

금숙: ㉖ (당황하며) 예? 저야..... 뭐.....

회기: 스물여덟이면 나보다 더 급하지 않아? 어때?

금숙: (동요되는 마음을 저지하려고 무척 애쓰며) 그건.....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요.....

회기: 생각?

금숙: (나지막하나 또렷하게) 저는 이런 생활이 결혼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요.....

- 차범석, 「성난 기계」 -

44 ㉔ ~ ㉖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회기’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게 말하세요.
- ② ㉕: ‘인옥’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것이 느껴지게 연기하세요.
- ③ ㉖: ‘금숙’의 말에 만족하여 침울했던 마음이 풀린 듯이 연기하세요.
- ④ ㉔: 대사의 내용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리듯이 말하세요.
- ⑤ ㉖: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하세요.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어 버린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한 현실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인간의 태도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여 그러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 ① ‘회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과 ‘인옥’이 일하고 있는 어두운 공장 등 이들을 둘러싼 비정한 현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②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회기’에게 기계와 같다고 말하는 ‘인옥’에게서 비정한 의식을 지니게 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의사로서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 못했다는 ‘회기’의 말에서 비정한 현실의 영향이 그의 의식에까지 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인옥’과 ‘금숙’을 대하는 ‘회기’의 태도는 그가 비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인옥’의 처지를 생각하는 ‘금숙’의 말이나 ‘회기’에 대한 ‘금숙’의 태도에서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